

교사의 놀이성과 놀이교수효능감의 관계 : 긍정적 놀이신념의 매개역할

The Mediating Effect of Teachers' Positive Beliefs about Children's Pla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layfulness in Teachers and Teaching Efficacy on Children's Play

권혜진(Hye Jin Kwon)¹⁾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among playfulness in teachers, teaching efficacy on play and teachers' positive play beliefs in a sample of 151 teachers working childcare center in Seoul and Chungcheungnam-do.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imple regress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eachers' playfulnes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positive play beliefs. Second, teachers' playfulnes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teaching efficacy on play. Finally, effect of teachers' playfulness on their teaching efficacy on children's play was totally mediated by their positive play beliefs.

Key Words : 교사 놀이성(Playfulness in Teachers), 놀이교수효능감(Teaching Efficacy on Play), 긍정적 놀이신념(Teachers' Positive Play Beliefs).

I. 서론

놀이는 영유아들에게 새로운 학습과 경험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은 영유아

발달과 학습에서 놀이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영유아교육현장에서 놀이중심 교육 실천이 강조되면서 놀이 환경의 준비자, 놀이 안전의 관찰자와 감독자로서 뿐만 아니라 놀이의 촉진자로서의

¹⁾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e Jin Kwon, Department of Child Studies, Korea Nazarene University Wolbong Ro 48, Seobuk-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331-718, Korea
Email : jini2005@kornu.ac.kr

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를 격려하고 적절하게 상호작용했을 때 발달과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Cheng, 2000; Cho & Kim, 2007; Trawick-Smith & Dziurgot, 2011)들은 영유아의 놀이참여와 발달에 있어서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놀이가 영유아 발달과 학습을 위한 최고의 교수매체이자 교수방법으로 간주되면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영유아의 놀이를 지도하는 교사행동(Pajares, 1992; Park, 2009; Shin, Yu & Park, 2004; Shin & Park, 2006)에 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교사들이 영유아들에게 ‘놀이다운 놀이’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고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을 지원할 수 있으려면 교사들이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미치는 놀이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초중등학교 교사의 교수효능감과 달리 영유아교사에게는 놀이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이 영유아교사의 교수행동과 교수운영 실재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요인(Enchos & Riggs, 1995; Kim & Kim, 2004; Oh, 2010; Shin, Yu & Park, 2004)이라는 점에서 최근 영유아교사의 놀이교수효능감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놀이교수효능감은 교사 자신이 어떻게 영유아의 놀이에 개입하고, 참여를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과 자신이 놀이에 개입하거나 참여 행동을 할 때, 자신의 행동이 영유아의 놀이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정도이다(Shin, Yu & Park, 2004). 놀이교수효능감 측정도구 개발(Shin, Yu & Park, 2004)에 의해 교수효능감이 유아의 구성놀이의 질과 놀이행동발달(Shin, 2000)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놀이교수효능감이 교사교육에 의해 증진되는지를 검증(Shin &

Park, 2006)한 결과 놀이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자신이 영유아의 발달과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또래 놀이를 격려하며, 영유아들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놀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Ahn, 2011; Park & Choi, 2002), 영유아의 놀이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놀이교수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놀이교수효능감은 주로 영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놀이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선행변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놀이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성격적 특성, 인지적 특성 등과 같은 다양한 선행변인 연구는 놀이교수효능감 증진 방안 모색에 실천적 함의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놀이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교사의 놀이교수효능감은 다른 영역의 교수효능감과 달리 교사자신의 놀이에 대한 흥미, 관심 등과 같은 내적 동기 변인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놀이에 대한 흥미, 관심 등과 같은 내적 동기 및 성향을 놀이성(playfulness)이라고 하는데, 놀이성이란 사람들이 즐거움을 더하기 위한 재미있는 활동으로 생각하거나 그 활동에 참여하는 성향을 말한다. 놀이성은 놀이하는 사람의 놀이행동에 대한 자발적인 내적 동기를 강조하는 놀이적인 태도를 일컫는 심리학적 개념이며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적 특성(Barnett, 1991; Barnett, 2007; Glynn & Webster, 1992; Park & Kim, 2004; Schaefer & Greenberg, 1997)으로 알려져 있다. 놀이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서 교사의 놀이성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놀이성은 즐거움, 관여, 만족도를 높이는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내재적 특질로, 자발성 및 창의성과 같은 놀이의 본질적 특성과 관련(Lee, Jo & Lee, 2010) 때문이다. 또한 행동의 목적이 자기 충족적이며 행동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Dako-Gyeke, 2008; FitzMedrud, 2008)이 있어 자기효능감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놀이성에 관련된 선행연구 대부분은 놀이성이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성, 기질 및 정서(Kim & Kim, 2006; Hwang & Choi, 2007) 등과 같은 개인 내적 변인과 관련되며 사회적 유능감(Hwang & Choi, 2007), 창의성과 다중지능(Yee, Lim & Oh, 2006), 자기조절능력(Ha, 2010), 적응능력(Choi & Yoo, 2012) 등 발달의 긍정적 결과와 관련이 있었다. 반면 성인의 놀이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는데, 전통적으로 어린 유아들에게는 놀이가 당연하지만 성인에게는 일이 더 중요하고 성인은 이미 사회적 의무와 역할 속에서 놀이적 본질(playful reality) 보다는 비놀이적 본질(nonplayful reality)에 더 속해 있다(Bozionelos & Bozionelos, 1999; Lee, Jo & Lee, 2010)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놀이성은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내적 특질이며 삶을 영위해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Erikson, 1977; Huizinga, 2010)이기 때문에 성인의 놀이성 역시 성인의 다양한 행동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성인 놀이성에 관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는데, 연구결과들(Barnett, 2007; Glynn & Webster, 1992; Schaefer & Greenberg, 1997)은 성인에게 있어서도 놀이성은 의미있는 심리적인 특성임을 확인시켜주었다. 놀이성이 높은 성인들은 일,

인간관계,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활동을 보다 즐기면서 접근하는 경향(Guitard, Ferland, & Dutil, 2005; Schaefer & Greenberg, 1997)이 있으며 놀이성은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긍정적 정서, 삶에 대한 만족과 의미있는 정적 관계가 있었고, 위축, 애착불안,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FitzMedrud, 2008). 놀이성은 건강과 안녕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치료 효과(Ward-Wimmer, 2003),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소진에 대한 조절효과(Park, Bae, Ji & Lee, 2011) 등이 있음이 확인되어서 놀이성이 성인의 직업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인 놀이성은 주로 놀이치료자나 부모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놀이성이 풍부한 치료자는 놀이치료실에서 아동이 놀이에 참여하도록 하는 자극하며(Go & Kim, 2010; Yang, 1998), 공감대 형성을 쉽게 하고 불안과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해독제를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을 이끌어내 아동이 즐거운 감정과 자발적인 놀이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Schaefer & Greenberg, 1997). 국내에서도 성인의 놀이성에 대한 초기 연구는 놀이치료자 놀이성과 내담자의 치료와의 관계(Go & Kim, 2010; Yang, 1998)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놀이치료자 외에도 어머니의 놀이성과 양육행동, 자녀 발달과의 관계(Cho, 2009; Kang, 2007; Park & Kim, 2004; Shin, Cha & Kim, 2008; Oh, 2007), 아버지의 놀이성과 양육행동, 자녀 발달과의 관계(Kim & Park, 2002; Kim, 2007; Kim, 2011)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성인 놀이성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놀이성이 양육행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놀이성이 높을수록 영유아의 발달에 긍정적

으로 작용하는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 반응적인 양육태도 및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유아들이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며 다양한 놀이를 하는 영유아교육기관에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성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모나 놀이치료자의 놀이성이 양육행동이나 치료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할 때 교사의 놀이성 역시 교수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교사가 영유아와의 놀이참여를 책임감이나 의무감에서 뿐만 아니라 영유아들과의 놀이가 즐거워서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면 교사가 놀이촉진자로서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들의 대부분이 영유아교육기관에서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생활하며 영유아들의 놀이경험이 주로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영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지지하며 개입하는 등 영유아의 놀이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교사의 놀이성에 대한 탐색이 매우 필요하고 의미 있다고 하겠다.

놀이에 대한 내적 성향인 놀이성은 영유아교사의 놀이 신념을 내면화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념이란 지식에 비해 쉽게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인지적 요소로 어떤 다른 요소보다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Siegel, 1992)으로 알려져 있다. 교사의 놀이 신념은 예비교사교육과 현직교사교육 등을 통해 영유아 발달에 있어서 놀이의 가치와 의미, 중요성을 내면화한 결과이다. 놀이성이 높은 성인은 어려운 상황을 도전적이고,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 문제상황에 맞는 신선한 해결책을 발견해내려는 성향(Guitard, Ferland, & Dutil, 2005)이 있는데, 이러한 성향은 놀이의 본질적 특성과

발달적 가치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놀이성이 높은 교사가 놀이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해 보다 긍정적 신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교사가 영유아 발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신념보다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갖는 신념이 구체적인 교수행동에 보다 구체적으로 영향을 준다(Fogel, 2003; Sigel, 1992), 즉 신념에 근거하여 교사는 교수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신이 정한 목표에 비추어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며, 영유아의 행동을 지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념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경로로 실제 교수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놀이에 대한 의사결정은 교사 자신이 놀이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놀이신념은 놀이교수효능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놀이교수효능감이란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활동에 적절하게 개입하거나 참여하여 유아의 놀이를 확장시켜 놀이가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다는 능력감을 의미하므로 교사가 놀이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예측된다. 어머니의 긍정적 놀이신념이 자녀의 놀이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Fogel, 2003)에 비추어볼 때 교사의 긍정적 놀이신념 역시 영유아의 놀이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사의 긍정적 놀이신념이 놀이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변인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 근거해볼 때 교사의 놀이성은 놀이교수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놀이성이 긍정적 놀이신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형성된 긍정적 놀이신념이 놀이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변인 탐색을 위한

전략, 즉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하며,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하며, 셋째, 독립변인 통제 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매개변인 통제 시 사라지거나 감소해야 한다는 조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매개효과 탐색을 위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먼저 교사의 놀이성이 긍정적 놀이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으로 교사의 놀이성이 놀이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교사의 놀이교수효능감에 대한 교사의 놀이성이 긍정적 놀이신념에 의해 매개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교사의 놀이성은 긍정적 놀이신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교사의 놀이성은 놀이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교사의 놀이교수효능감에 대한 놀이성의 영향은 긍정적 놀이신념에 의해 매개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충청남도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사 151명이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 어린이집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시설유형은 직장어린이집(61.8%)이 가장 많았고, 민간어린이집(27.6%), 법인어린이집(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분포는 25~30세가 58.6%로 가장 많았고 31~35세 22.4%, 35

세 이상 10.5%, 25세 미만 17.7%의 순이었다. 기혼(30.9%)보다는 미혼(69.1%)인 경우가 더 많았다. 보육경력은 1~3년(29.6%)이 가장 많았고, 3~5년(25.5%), 5~7년(16.4%), 1년 미만(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 직장경력은 1년 미만(37.1%)이 가장 많았으며 1~3년(33.9%), 3~5년(14.0%)의 순이었다. 담당학급은 영아반(51.9%)이 유아반(49.1%)보다 약간 많았다.

2. 연구도구

1) 교사 놀이성

교사 놀이성은 놀이치료자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Schaefer & Greenberg(1997)가 제작한 성인용 놀이성 척도(Playfulness Scale for Adults : PSA)를 Oh(2007)가 수정 보완한 척도로 측정되었다. 성인용 놀이성 척도는 유머감각, 익살스러움, 재미탐닉의 3가지 요인을 측정하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놀이성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교사 놀이성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6$ 이다.

2) 놀이교수효능감

교사의 놀이교수효능감은 Shin, Yu & Park(2004)가 개발한 놀이교수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놀이교수효능감 검사도구는 “나는 유아의 놀이가 확장되도록 적절한 장소와 자료를 제공하거나 개입하는데 유능한 편이다”와 같은 놀이지도에 대한 효능(12문항)과 “만일 유아의 놀이수준이 높아졌다면 그것은 교사가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놀이에 개입했기 때문이다”와 같은 놀이지도에 대한 결과기대(9문항)로 나누어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평정 척도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놀이

교수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에서 놀이교수효능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8$ 이다.

3) 긍정적 놀이신념

교사의 긍정적 놀이신념은 Fogel(2003)이 제작한 PPBS(The Parent Play Beliefs Scale)를 변인한 You(2008)의 어머니 놀이신념 척도를 영유아교육기관상황에 맞게 수정한 척도로 측정되었다. You(2008)의 어머니 놀이신념 척도는 긍정적 놀이신념, 부정적 놀이신념, 부모중심놀이신념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놀이신념 영역만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인인 선정된 놀이교수효능감이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활동에 적절하게 개입하거나 참여하여 유아의 놀이를 확장시켜 놀이가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다는 능력감을 의미하므로 교사가 놀이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예측되어 긍정적 놀이신념만을 연구도구로 사용하였다. 긍정적 놀이신념은 “놀이는 아동의 사고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놀이는 아동에게 무척 재미있는 활동이다”와 같은 놀이를 통해서 유아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검사문항은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드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8$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는 긍정적 놀이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서울시와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

료 중 응답내용이 미전하거나 누락된 문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총 151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문제 고찰에 앞서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특성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 고찰을 위해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연구문제별 연구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계수를 제시하면 Table 1, Table 2와 같다.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사 놀이성의 평균은 60.29이고, 이를 문항수로 나누어보면 4점을 기준으로 할 때 3.34로 나타났다. 교사의 긍정적 놀이신념의 평균은 51.30으로 이를 문항수로 나누어보면 5점 기준으로 3.94로 나타났다. 놀이교수효능감의 평균은 76.95로 이를 문항수로 나누어보면 5점 기준으로 3.66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2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playfulness in teachers, teachers' positive play beliefs, teaching efficacy on play (N = 151)

Variables	M	SD
Playfulness in teachers	60.29	6.94
Teachers' positive play beliefs	51.30	4.97
Teaching efficacy on play	76.95	7.98

<Table 2> Correlations of playfulness in teachers with teachers' positive play beliefs, teaching efficacy on play ($N = 151$)

	Playfulness in teachers	Teachers' positive play beliefs	Teaching efficacy on play
Playfulness in teachers		.258*	.346**
Teachers' positive play beliefs			.625***
Teaching efficacy on play			

* $p < .05$. ** $p < .01$. *** $p < .001$.

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사의 놀이성은 긍정적 놀이신념($r = .258, p < .05$), 놀이교수효능감($r = .346, p < .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긍정적 놀이신념은 놀이교수효능감($r = .625, p < .001$)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1. 긍정적 놀이신념에 대한 교사 놀이성의 영향

긍정적 놀이신념에 대한 교사의 놀이성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교사 놀이성을 독립변인으로, 긍정적 놀이신념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사의 긍정적 놀이신념에 미치는 교사 놀이성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사의 놀이성은 긍정적 놀이신념($\beta = .258, p < .05$)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긍정적 놀이신념에 대한 설명력은 6.6%로 나타났다. 즉, 교사의 놀이성이 높을수록 긍정적 놀이신념이 더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번째 조건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이다.

2. 놀이교수효능감에 대한 교사 놀이성의 영향

놀이교수효능감에 대한 교사의 놀이성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놀이성을 독립변인으로, 놀이교수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사의 놀이교수효능감에 미치는 교사의 놀이성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사의 놀이성은 교사의 놀이교수효능감($\beta = .346, p < .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놀이교수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은 12.0%로 나타났다. 즉, 교사의 놀이성이 높을수록 놀이교수효능감도 더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

<Table 3> Simple regression : Effect of playfulness in teachers on teachers' positive play beliefs ($N = 151$)

Predictors	Teachers' positive play beliefs				
	B	SE $_{\beta}$	β	R ²	F
Playfulness in teachers	.222	.110	.258*	.066	4.049*

* $p < .05$.

<Table 4> Simple regression : Effect of playfulness in teachers on teaching efficacy on play (N = 151)

Predictors	Teaching efficacy on play				
	B	SE _β	β	R ²	F
Playfulness in teachers	.399	.143	.346**	.120	7.765**

**p < .01.

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이다.

3. 교사의 놀이교수효능감에 대한 놀이성과 긍정적 놀이신념의 영향

교사의 놀이성과 긍정적 놀이신념이 놀이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교사의 놀이성과 긍정적 놀이신념을 독립변인으로, 교사의 놀이교수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 지수를 살펴본 결과, 놀이교수효능감에 대해 교사놀이성과 긍정적 놀이신념의 공차한계는 0.93, VIF 지수는 1.07의 분포를 보여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의 놀이성이 놀이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 놀이신념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3의 결과에 따라 교사의 놀이교수효능감에 대한 교사 놀이성과 긍정적 놀이신념의 영향을 살펴보면 1단계 분석에서 교사의 놀이성은 놀이교수효능감에 정적인 영향($\beta = .346, p < .01$)을 미쳤다. 교사의 놀이성과 긍정적 놀이신념이 놀이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2단계 분석에서는 교사의 놀이성은 놀이교수효능감에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beta = .200, ns$)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놀이신념만이 놀이교수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beta = .569, p < .001$)으로 나타났다. 놀이교수효능감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교사 놀이성만이 투입된 경우 12.0%로 나타났고 긍정적 놀이신념 변인이 추가 투입되면서 설명력이 30.2%가 증가되어 총 설명력은 42.2%로 나타났다. 교사 놀이성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이전에 존재하던 교사 놀이성 변인의 놀이교수효능감 변인에 대한 영향이 사라졌다. 이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for playfulness in teachers, teachers' positive play beliefs, teaching efficacy on play (N = 151)

Step	Predictors	B	SE _β	β	R ²	ΔR ²	F
Step 1	Playfulness in teachers	.399**	.143	.346**	.120	.120	7.765**
Step 2	Playfulness in teachers	.230	.121	.200(ns)	.422	.302	20.461***
	Teachers' positive play beliefs	.763	.141	.569***			

p < .01. *p < .001.

완전매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세 번째 조건 즉, 독립변인 통제 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매개변인 통제 시 무의미해져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로써, 교사의 긍정적 놀이신념은 교사놀이성과 놀이교수효능감의 관계를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교사의 놀이성과 놀이교수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교사의 놀이성이 놀이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교사의 긍정적 놀이신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된 연구결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영유아교사의 놀이성은 교사의 긍정적 놀이신념에 영향을 미쳤다. 교사가 긍정적 놀이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교사가 놀이가 영유아에게 즐거운 활동이어야 하고 영유아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교육적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의 놀이성이 긍정적 놀이신념에 영향을 미쳤다는 본 연구결과는 성인대상 놀이성 연구결과들의 연장선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놀이성이 높은 성인은 어려운 상황을 도전적이고,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 문제 상황에 맞는 신선한 해결책을 발견해내려는 성향(Guitard, Ferland, & Dutil, 2005)이 있다. 이러한 성향은 놀이의 본질적 특성과 발달적 가치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놀이성이 높은 교사가 놀이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해 보다 긍정적 신념을 형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놀이성이 높은 교사들은 영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세상을 배우며 발달해간다(Brown & Vaughan, 2009)고 보고 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교육신념으로 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가 긍정적 놀이신념을 갖는 것은 교사의 중요한 자질이므로 교사 자질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Pajares, 1992; Spodek, Saracho., & Peter, 1988)는 점에서 이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놀이성이외에도 교사의 긍정적 놀이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탐색이 요구된다.

둘째, 교사의 놀이성은 놀이교수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서, 교사의 놀이교수효능감에 교사자신의 놀이에 대한 흥미, 관심 등과 같은 내적 동기 변인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놀이성이 높은 교사는 영유아와의 놀이 활동에서 즐거움과 재미를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들은 자신이 영유아의 놀이 활동에 적절하게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영유아의 놀이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형성하여 교사역할을 더 잘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사가 영유아와의 활동에 재미를 느끼는 것이 교수활동에 긍정적 영향(Jarrett, 1998)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놀이성이 높은 성인들이 일이나 활동을 보다 즐기면서 접근하는 성향(Schaefer & Greenberg, 1997)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이 직업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잠재력으로 작용(FitzMedrud, 2008)하여 보다 나은 수행결과를 산출한다(Spaulding, 2010)는 관련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놀이치료자(Go & Kim, 2010; Schaefer & Greenberg, 1997; Yang, 1998). 어머니(Cho, 2009; Kang, 2007; Oh, 2007; Park & Kim, 2004; Shin, Cha & Kim, 2008)와 아버지(Kim & Park, 2002; Kim, 2007; Kim, 2011)의

놀이성이 높을수록 영유아의 치료와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 반응적인 태도 및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놀이성이 풍부한 교사는 놀이에서 나타나는 애매 모호함을 잘 견디고 융통성이 있어서(Guitard, Ferland, & Dutil, 2005) 영유아의 창의적 사고를 격려하고(Tegano, 1990), 민감하게 상호작용(Trawick-Smith, & Dziurgot, 2011)할 수 있다. 교사가 영유아와의 놀이에 책임이나 의무만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놀이를 즐기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사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을 갖도록 한다. 궁극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지 못한다면 높은 수준까지 놀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Brown & Vaughan, 2009).

셋째, 교사의 놀이성은 긍정 놀이신념을 매개로 놀이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 교사의 놀이성은 놀이교수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긍정적 놀이신념과 함께 놀이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경우에는 놀이성이 놀이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사라지고 긍정적 놀이신념을 매개로 한 경우에만 놀이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 개인적인 심리적 성향인 교사의 놀이성(Barnett, 1991; Barnett, 2007; Glynn & Webster, 1992; Park & Kim, 2004; Schaefer & Greenberg, 1997)은 직접적으로 놀이교수효능감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교사의 긍정적 놀이신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형성된 긍정적 놀이신념이 놀이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교사의 교수행동은 교사의 교육적 신념에 기초한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Stipek & Byler, 1997), 교사의 개인적인 성향인 놀이성보다는 예비교사교육, 현직교사교육을 통해 형성된 놀이에 대한 교육적 신념이 구체적인

교수활동에 더 직접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교사의 신념과 교수효능감은 서로 관련이 있고(Ahn, 2011; Shin, Yu & Park, 2004), 교사가 영유아 발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신념보다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갖는 신념이 구체적인 교수행동에 보다 구체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결과들(Fogel, 2003; Sigel, 1992)에 비추어볼 때, 이 연구결과는 교사의 영유아의 놀이에 대한 신념이 구체적으로 놀이교수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교사의 놀이성은 긍정적 놀이신념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놀이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이 영유아교육의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화되면서 교사의 주도하에 유아가 교육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놀이가 사용되어지면서 놀이의 본질적 측면인 자율성, 창의성이 간과(Chung, 2004; Kwak & Ahn, 2010; Kim & Kim, 2010)되고 있다. 도구화된 그리고 학습과 교수의 매개체로서 놀이 활동은 교실의 수업을 주도하고 있으나 유아들의 삶과 일상이 담긴 놀이는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는 현실이다(Chung, 2004). 이러한 현실이 초래된 것은 영유아의 놀이의 주요 파트너중의 하나인 교사가 영유아와 놀이 상호작용을 할 때 '진정으로 즐기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놀이의 본질적 특질이 즐거움, 재미, 몰입이므로 교사 역시 놀이에 즐겁게 자발적으로 몰입하여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예비교사교육이나 현직 교사교육에서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교사의 놀이성을 활성화하여 교사들이 일차적으로는 놀이자체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예비교사교

육과 현직교사교육과 실천을 통해 놀이의 가치와 중요성을 내면화하여 긍정적 놀이신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가 영유아와의 놀이참여를 책임감이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영유아들과의 놀이가 즐거워서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면 교사가 놀이촉진자로서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놀이성이 직접적으로 혹은 교사의 교수행동이나 놀이활동에 대한 개입활동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놀이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교사의 놀이성과 유아의 놀이성이나 놀이활동과의 관계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있어서 놀이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 활동에 적절하게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놀이지도에 자신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가 놀이가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있어서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실제 교육활동에서 놀이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Dako-Gyeke, 2008)이 있으므로 교사들이 긍정적 놀이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놀이교수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 결과 교사가 영유아들과의 놀이를 즐기는 마음으로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교사의 놀이교수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사의 긍정적 놀이신념은 교사의 놀이성과 놀이교수효능감의 관계를 매개하였는데, 이는 예비교사교육과 현직교사교육을 통해 교사들이 긍정적 놀이신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영유아들과 놀이에 교사가 많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놀이참여시 영유아

의 놀이에 놀이자로서 적극적으로 즐겁게 참여하여 놀이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사의 내적 성향인 놀이성을 기르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교사의 놀이교수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임을 시사한다. 이 연구결과는 교사가 영유아와 높은 질의 놀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교사놀이성 향상 및 놀이교수효능감 향상을 위한 직전 교육프로그램, 보수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 기대된다.

참고 문헌

- Ahn, H. J.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aycare teachers' efficacy belief on play and acceptability of improving social skills strategi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20(4), 777-787.
- Barnett, L. A. (1991). The playful child : Measurement of a disposition to play. *Play and Culture*, 4, 51-74.
- Barnett, L. A. (2007). The nature of playfulness in young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4), 949-958.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ozionelos, N., & Bozionelos, G. (1999). Playfulness : It's relationship with instrumental

- and expressive trai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6, 749-760.
- Brown, S., & Vaughan, C. (2009). *Play : How it shapes the brain, opens the imagination, and invigorates the soul*. Avery Publishing Group.
- Cheng, S. F. (2000). A teacher's understanding and practices regarding children's play in a Taiwanese kindergart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SA.
- Cho, K. M. (2009). The relationship study on the playfulness, rearing behavior and rearing attitude of gifted children's mot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cheon University, Incheon, Korea.
- Cho, H. J., & Kim, N. S. (2007). The relationships between toddlers' social-cognitive play behaviors and the environmental variables of play materials and teachers' interaction. *Th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7(1), 199-219.
- Choi, J. H., & Yoo, M. S. (2012). The effects of playfulness and friendship quality on the school adjustment process of children.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5(2), 197-217.
- Chung, S. A. (2004). How teachers construct the meaning of child-centered education through narratives. *Th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4(4), 305-329.
- Dako-Gyeke, M. (2008). Being playful and smart? The relations of adult playfulness with psychometric and self-estimated intelligence and academic performance Ghanaian preschool and kindergarten teachers' beliefs about children's pla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USA.
- Enochos, L. G., & Riggs, I. M. (1995). The relationship of pupil control to preservice elementary science teacher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ncy. *Science Education*, 79(1), 63-75.
- Erikson, E. H. (1977). *Toys and reasons*. N.Y. : Norton.
- FitzMedrud, E. J. (2008). The correlates of playfulness in adul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linical Psychology Institute of Transpersonal Psychology Palo Alto, California, USA.
- Fogel, L. (2003). Parent beliefs about play : Relations with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child peer play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USA.
- Glynn, M., & Webster, J. (1992). The adult playfulness scale : An initial assessment. *Psychological Reports*, 71, 83-103.
- Go, E. A., & Kim, J. N. (2010). The effect of the playfulness and limit-setting of play therapist on the therapeutic alliance.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4(1), 1-19.
- Guitard, P., Ferland, F., & Dutil, L. (2005).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playfulness in adults. *The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of Research*, 25(1), 9-22.
- Ha, M. H. (2010). Relationship among parental beliefs about child play, playfulness, and behavioral self-regulation of 5-year-old child-

- 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Huizinga, J. (2010). *Homo ludens : A study of the play-element in culture*. Lee, J. I. (translation). Seoul : Yeounamseoga.
- Hwang, Y. S., & Choi, M. S. (2007). The analysis on the causal model between playfulness, temperament, and social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2(2), 49-66.
- Jarrett, O. S. (1998) Playfulness : A motivator in elementary science teacher preparation. *School Science and Mathematics*, 98(4), 181-187.
- Kang, M. K. (2007).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in the influence of mother's playfulness to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H. (2009). The study of relationship among father's play participation, playfulness, and young children's leader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Gyeonggi, Korea.
- Kim, J. S. (2011). The effect of father's playfulness, parental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s on playfulness of young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Y. (2007). A study on the effect of father's playfulness with his child in early childhood to father's rear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 C., & Kim, A. N. (2010). National standard kindergartens in the eyes of evaluation committee member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7(1), 147-176.
- Kim, J. H., & Kim, K. W. (2006). The correlation between playfulness and emotional competence of children.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9(1), 91-105.
- Kim, K. S., & Park, I. J.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rearing behaviors, playfulness, and young children's playfulness.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5(2), 27-43.
- Kwak, H. L., & Ahn, G. S. (2010). Reflections on teacher-directed teaching and learning : From the perspectives of both teachers' and children's Lives. *Th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0(2), 309-337.
- Lee, H., Jo, H. B., & Lee, Y. J. (2010). Development of adult playfulness scale.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34(9), 165-188.
- Oh, H. J. (2007). A study on mother's playfulness comparison between general children and child patients under play therap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Oh, S. J. (2010) The sources that influence student teachers' sense of effica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USA.
- Pajares, F. (1992). Teachers' beliefs and educational research : Cleaning up a messy construct. *Review of Education Research*, 62(3), 307-322.
- Park, W. Y. (2009). An analysis of the research

- contents of teacher's play guid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57(1), 75-102.
- Park, H. T., Bae, S. Y., Ji, J. H., & Lee, K. H. (2011). Moderating effect of playfulness and fun leade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among hospital employee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5(3), 25-39.
- Park, H. S., & Kim, K. W. (2004). A study on the mother's playfulnes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7(1), 13-24.
- Park, S. Y., & Choi, M. S. (2002). Meaning and method of adult interventions at the play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Play Therapy*, 6(1), 15-27.
- Schaefer, C., & Greenberg, R. (1997). Measurement of playfulness : A neglected therapist variable.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2(6), 21-31.
- Shin, E. S. (2000). The effects of teacher's efficacy beliefs about play on teacher - child interaction and children's play. *Th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 27-42.
- Shin, E. S., & Park, H. K. (2006). Effects of teacher education about pretend play on teachers' efficacy of play, teachers' intervention, and levels of children's social pretend play. *Th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6(6), 287-310.
- Shin, E. S., Yu, Y. U., & Park, H. G. (2004). Developing and validating an instrument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kindergarten teachers' efficacy beliefs on play and their beliefs on play management practice. *Th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4(1), 46-69.
- Shin, S. H., Cha, Y. H., & Kim, Y. H. (2008). The relations among mothers' playfulness and parenting behavior, young children's playfulnes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5(1), 281-299.
- Sigel, I. E. (1992). The belief-behavior connection : A resolvable dilemma. In I. E. Sigel., A. V. McGillicuddy-De Lisi, & J. J. Goodnow. (Eds.), *Parental belief systems :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2nd ed.)*, (pp. 433-456).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paulding, J. T. (2010). The effects of experiential learning with playfulness in the adult education classroo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SA.
- Spodek, B., Saracho. O. N., & Peters, D. L. (1988). *Professionalism and the early childhood practitioner*. Ne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 Stipek, D. J., & Byler, P. (1997).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 : Do they practice what they preach?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 305-325.
- Tegano, D. W. (1990). Relationship of tolerance ambiguity and playfulness to creativity. *Psychological Reports*, 66, 291-300.
- Trawick-Smith, J., & Dziurgot, T. (2011). 'Good-fit' teacher-child play interactions and subsequent autonomous play of preschool child-

- 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6, 110-123.
- Ward-Wimmer, D. (2003). Introduction : The healing potential of adults at play. In C. Schaefer(Ed.), *Play therapy with adults*(pp. 1-11). Hoboken, NJ : John Wiley & Sons.
- Yang, E. S. (1998). Relationship between playfulness of the play therapists and a career, an attitude, knowledge, and skil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Yee, Y. H., Lim, Y. O., & Oh, K. Y.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creativity, playfulness and multiple intelligence.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9(1), 15-24.
- You, M. (2008). The effects of maternal beliefs about play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on children's playful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012년 8월 31일 투고, 2012년 11월 26일 수정
2012년 12월 7일 채택